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천지개벽을 안아온 위훈의 창조자들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의 나날을 더듬으며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에 의하여 세로동반이 굴지의 대규모축산기지로 훌륭하게 전진되었다. 눈부리도록 펼쳐진 5만여평의 광대한 들장, 수천평의 살림집과 집집순우리들, 축산물고기들 등으로 이루어진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의 완공! 이것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위대한 당의 구상과 결심은 곧 실천이며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었다. 정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로동반을 개간하여 대규모축산기지로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 하였습니다.》

눈부신 창조와 건설로 세기적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놓는 것은 주체조선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다.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은 불과 고기구를 비롯해 대한 당정책관청과 나라의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적역할을 열어놓을 거대한 사업이다.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의 완공은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천만군민의 일상생활의 위력을 단번에 다스리던 힘있게 과시한것으로 된다.

우리는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의 사상관철전으로 세로동반에 사회주의무명도원을 펼쳐놓는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영웅를 가슴우리에 더듬어본다.

이러 불적대원들이었다. 개간과정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놈들이 뚝 수만개의 목말풀들이 밟힌 세로동반, 여기서 지적인 군사분계선에서는 적들이 반공화국모략선전들을 뿌리며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 사관들이 찾아와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을 주시하였다.

말그대로 원수들과의 대결, 사회주의조국옹위사수를 위한 결사투쟁으로 벌어진 개간전투과정에서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다. 평안남도며던 성천군대대원이었던 방호일동무는 뜻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목숨으로 지켜내고 정렬한 최후를 마쳤다.

정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뜨거운 은정속에 그는 로력영웅으로 영웅의 삶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애들은 영광과 행복을 어찌 그 혼자만이 지었다고 하랴.

일군들이 처음 해보는 일을 놓고 안다짜와할 때에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도시도 보내주시어 안목을 띄워주시는 정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

불편한 생활과 악기를 비롯한 사방의 선물들을 거들 안겨주시는 정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음에 세로동반의 건설자물들이 영웅적으로 일군다고 한다.

그 사방이 있어 엄동설한에도 이들의 마음은 얼지 않았다. 그 온정이 이들을 창조의 거인으로 키워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5만여평의 풀밭을 개간한다는 미증유의 기적, 대자연계조신화를 낳게 하였다.

불편한 두리에 잠들때는 막이 풀에서 첫머리 울려났을 때

당중앙위원회 일군들로부터 억대우급은 군인건설자, 치녀들적대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올랐다. 수천년 역새출판 무성하던 땅에서 인민의 만물의 새색이 울리기 시작했것이 너무 기뻐 울었다.

백일불굴의 혁명정신만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 신념을 안고 병설원지에서의 악고고투도 달게 어긴 개척자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로 펼쳐나선 그들의 담대한 배짱과 영웅적기개애에 힘드찬 자연도 버리볼 수이었다.

세로, 평강, 이천군을 포괄하는 드넓은 지역에 연연히 펼쳐 있는 광대한 들장에서 이들은 지난 몇해동안 오리새와 지주들 자리들을 비롯한 영양가 높은 먹이들과 《애국꽃》을 수확하여 축산물생산단위들에 넘겨주었다. 이 재부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건설자들과 동적대원들이 5년 동안에 생산해낸 수백만t의 소석회와 유기질비료를 비롯한 각종 도양제장제를 쌓아놓았다. 이 재부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건설자들과 동적대원들이 5년 동안에 생산해낸 수백만t의 소석회와 유기질비료를 비롯한 각종 도양제장제를 쌓아놓았다. 이 재부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건설자들과 동적대원들이 5년 동안에 생산해낸 수백만t의 소석회와 유기질비료를 비롯한 각종 도양제장제를 쌓아놓았다.

합계 석비와 섞어 블로크를 단물었다. 이것을 축산건설에 리용한 결과 나라의 귀한 자재인 세멘트를 절약하게 되었다. 1동2세대살림집 수십동을 건설할수 있는 셈이었다. 이 사실을 놓고 그는 이렇게 그루를 막았다.

자력생성자가 미국이며 승리의 길이다.

일군들과 대원들은 이 권리를 배에 새기고 천리길을 뛰어다니면서 파벽들을 찾아내어 소성으로 쌓았다. 황해북도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당장 쓰지 않는 번안기나 전동기를 비롯한 실비들도 해결하였다. 그리고 밭이 넓어질수록 길에서 끝내내 찾아낸 석회석대장치가 끼어 기지를 꾸리었다. 동적대원들은 여기서 지난 여러해동안 안 밭과로 새해 첫 전두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며 석회석을 채취하여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였다.

이것은 련단이 많은 대장건설에서 큰 음을 나타내었다. 이 단원들이 아니었다.

인민보안성원들의 군인건설자들은 현대적인 기와생산기지와 버거제에 의한 보온부대생산기지를 꾸리고 리용하면서 세로군 생산의 소재지를 번듯하게 일신시켰다.

황해남도리에서는 또 어떤 기적을 창조하였는가. 이곳 일군들과 대원들은 주변에 흔한 초부연탄에 의한 벽돌생산방법을 찾았다. 이것은 이런 생산방법이 상식사의 일로 치부되던 때였다.

하지만 그들은 기성의 리본이나 장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초형길을 두려움없이 걸어 한해에 100여만장의 벽돌을 생산해내는 기지를 꾸려 건설을 힘있게 다그쳤다.

정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는 대규모축산기지건설시대를 걸이 로해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거들 주시어 나아갈 길을 활히 밝혀주시었다. 이른 새벽에도 기적창조의 방랑과 방도를 찾아주신 정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로고에 대해 우리 어찌 다 말할 수 있랴. 온 나라를 불타오르게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신 정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 건설에서 대미적이 일어났다.

군인건설자들과 동적대원들은 길은 산골에 이르기까지 풀먹는집집순우리기에 유리한 지역이 1동2세대살림집과 종축기지들, 소와 양, 염소 등을 키울수 있는 등지는 집집순우리들을 건설하였다. 또한 수의방역 및 인공수정시술을 꾸리었다. 여기에 축산학연구소까지 설립해서 세우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이 연구사업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세로지구와 같은 대규모축산기지에서 생산과 경

가 본보기로 될수 있는 존중한 도대 불구축하였다. 또한 그들은 축산물 및 먹이가용까지 그리고 새관동결정액생산기지도 일떠세웠다. 형식과 내용에 시 현대적인 이 대상들이 건설됨으로써 세로동반은 물론 각지에 우량종종의 집집순우를 넓혀 리치는데서 의의가 큰 재부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그 나날 군인건설자들과 동적대원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식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배에 새기었다. 하기에 그들은 많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세로동반의 곳곳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창조물들, 민족적특색에 현대미를 갖춘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는 건축물들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과학기술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세로동반에서 토지개방, 먹이풀과 먹이작물의 배지와 재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량종종의 풀먹는집집순우를 빨리 퍼지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드넓은 축산영역에서 경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이런 각이한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과학적재부가 세로지구에서 창조되었다.

여기에는 2월 17일파학자, 기술자용적대원들이 대규모축산기지에서 과학연구사업이라는 초형길을 걸던 나날에 바친 지혜와 맘이 숨겨져있다.

세로동반에 달려나온 그들은 토양분석에 달려왔다. 개간한 땅에 풀밭을 조성하는데서 이 사업이 선차적이었던것이다. 파학자, 기술자들은 3개 군의 수만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강령군에 나섰다.

지금처럼 가세로 권리하게 된 도로도, 교통수단도 별로 없었던 때 그들은 무거운 시료배낭을 메고 멀리 떨어진 길을 걸었다. 눈이내리는 겨울같은 배낭을 메고 더위와 추위를 버티는 땅을 한치한치 밟고 걷는 날이 허다하였다. 하지만 도중에 주저앉지 않았다.

행명선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조국의 대지앞에서 한없이 순결하려는 마음, 설사 광활한 등지의 어느곳에서 남모르게 쓰러진다 해도 후학자의 깨끗한 땅을 지키는 버리지 않는 신념이 그들을 불사신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몇해동안 각 시공단위의 면적에 따라마다 정밀 수만장의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의 산도를 측정하였으며 토지개방방도를 찾아내었다.

풀밭조성의 과학적결과를 얻 그들은 세로지구의 특색에 맞으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먹이풀과 작물, 풀먹는집집순우를 선정배치하고 키우며 수의방역대책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해결을 위한 강령군을 편수 다그쳤다.

이 나날 그들은 축산기지건설과 함께 기지운영능비를 집합해 대한 당의 뜻을 만들고 통합생산체계를 세우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이 연구사업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세로지구와 같은 대규모축산기지에서 생산과 경

계대원들은 새 종종의 목감자를 세로지구에 널리 퍼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해결을 해결하고 그 가용방법을 완성하는것과 함께 지하해충구제를 위한 농약을 연구개발하여 먹이풀정 보양 수확고를 높일수 있도록 하는데도 적극 기여하였다. 또한 집집순우리의 환경개선조종제와 집집순우리식별목적제량 및 사양관리정보화체계 그리고 휴대용수의방역설비와 악을 연구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해결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파격에 《물관병해충사정법》과 같은 국보적인 도서까지 완성하였다.

그들이 불라는 애국충정과 신념으로 걸은 과학기술행군에 열매가 주렁지고있다. 축산물생산단위들에 우량종종의 풀먹는 집집순우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풀만능능작용의 통합적기회화현에 필요한 여러가지 농기계가 제작도입되고있다. 과학축산도대추성을 위해 현물을 초 불치럼 태운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맘이 숨겨진 풍채발전기와 양수기들이 곳곳에 설치된 모습은 또 하나의 이룩은 풍경을 떨치고있다.

과학기술의 위력을 떠받들며 세로지구 축산기지가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 ※

《풀이저라 푸밭은 대지여》
가없이 넓은 풀밭에 새겨진 이 글씨가 유난히도 맑은 빛을 뿌린다.

그렇다. 세로동반이 풀이저라!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이 한창일 때 이곳을 찾은 외국인들은 거창한 대자연계조사업에 참가하고 이끄시는 정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영도에 현명성에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조선은 걸심하면 한다고 엄지손가락을 흔들었다.

정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조국에 황무지란 없다는 신념을 안고 육신이 되어 대지엔을 정복한 건설자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군 현사안사를 쫓고 앞서가는 어머니 우리 당과 인제나 신장의 박동을 같이하였다. 하기에 우리는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자들의 전두력사를 위하여 전면 일심단결이며 승려라고 긍지높이 말했다.

위훈의 창조자들은 천지개벽된 세로동반, 일망무제한 이 대지를 사회주의대초원이라고 부른다. 온 세상에 떠이오다니며 자랑하고있는 사회주의형은대지를 펼쳐놓을 위대한 우리 당에 인민의 걸걸한 념원을 담아 삼가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글 쓴사기자 김성현
사진 쓴사기자 신종혁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날은 영웅적기상

주제 101(2012)년 9월 22일, 오랜 세월 잠자던 세로동반을 통째로 두들겨깨우는 번개가 왔다. 우리 당이 세로지구에 대규모축산기지를 건설할데 대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친 바로 그날이었다.

정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환경정이라고 사방하신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세로동반을 천지개벽시킬 대용단을 내리시었다.

천길, 천군, 천민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일떠선 속에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자들이 세로, 평강, 이천군의 전투장으로 룡룡처럼 달려왔다.

당중앙위원회와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각 도의 일군들이 앞장서서 이 대목에는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전국의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부사, 부부, 형제들도 있었다.

등반개간전투에 진입한 주제 101(2012)년 12월, 예로부터 눈로, 비로, 바람로가 유명하다고 하여 세로라고 불리우는 이곳에 강우위가 닳쳐들어 이 고장 사람들도 허를 내들었다. 모질고도 엄중한 후위에 땅은 두렵게 얼어붙고 역새들이 무성한 등반은 흰눈에 묻혀있었다. 이런 극악한 조건에서 광활한 등반을 개간한 전령은 없었다. 더우기 한해에 1000정도의 개간해도 기적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5만여평의 풀밭개간은 50년후에야 풀을 뜯수 있는 방대한 일감이었다.

그러나 우리 축산기지건설자들에게는 이 계산법이 통하지

않았다.

당도의 부름에 결사의 실천으로 화답하는 열현의 무사가 될것을 맹약한 우리들이 아닌가. 세로동반을 베고죽는다 해도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자!

당중앙정치부위 일군들은 이렇게 심정을 풀이면서 남들이 거처야 할 50년을 미약하여 1년동안에 풀밭개간을 끝낼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단장약한 군인건설자들이 먼 먼서 결사전에 진입한데 이어 그들이 휘날리는 붉은기를 따라 전대오가 불사신이 되어 나아갔다. 등반같이 하는 프락프에 부하가 걸린 바위와 보습들을 어찌로 떠밀어나갔다.

후독한 후위로 하여 프락프가 움직이지 못하고 연방을 갈던 강철보습날이 부러져나갔다. 동적대원들은 저마다 함파와 정태를 펼쳐리었다. 일단 할 마를 위해 1000년 지어 하루 수천년 때리기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까면 흙덩이를 비벼 풀뿌리를 걷어내느라, 자연 풀밭을 개간하면서 잠판목지와 풀뿌리를 걷어내느라 카드라진 손을 펴수 없이 영예의 표창장을 받을 때 가슴으로 받아안았다는 일화들 남긴 동적대원들은 그 어디에 있었다.

우리의 일손이 늦어져 당일에 다진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보다 피스로운 일이 또 어디에 있으랴.

바로 그때였다. 그때 문에 이들은 전투장가끼리에 반도굴 식별신과 속소들을 꾸리었다. 이 구간을 《동적대지》라고 정격계 부드면서 분초를 다투어 개간전투를 벌인 군인건설자들

우리의 힘, 우리 식이 제일

광대한 풀밭만이라면 우리 세로동반을 그리도 크게 자랑하지 못하리라.

세로, 평강, 이천군의 곳곳에 새로 건설된 풀밭개간이 아름다운 마을들이며 집집순우리와 공룡정물들, 수천평에 달하는 형형색색의 건축물들이 줄비하게 일떠서 세로지구가 도시처럼 전진되었다.

비단우의 폭포도 같이 대초원을 더욱 눈부시게 장식해주는 희한한 건축물들의 주추들, 기초로 된것은 다름아닌 우리의 힘, 우리 식이 제일이라는 신념이었다.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은 다른 대장건설에 비해 규모와 내용이 있어서 더 방대하고 어려웠다.

시공단위들에서는 많은 번개의 풀밭을 조성하고 가꾸어 먹이풀을 생산하면서 정글 여러동으로부터 100여종에 달하는 살림집과 집집순우리, 공공

건물건설을 맡아해야 하였다. 그러다보니 자체소요량이 매우 많았다. 군소제자들은 물론 볼동수송에 불리한 길은 산골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건설장에서는 누구나 한방출의 연을, 한의 세멘트를 퍼와 살림치면 여기였다. 그러하여 어느 단위에서나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동적로를 일어나갔다.

정강에는 지금도 황해북도리단에서 꾸린 세멘트생산기지가 있다.

면정정지일군이 처음 이 기지건설을 맡기하였을 때 대원들은 놀랐다. 물론 이들은 남보다 먼저 능력이 큰 석회로를 건설한 선구자였다.

그러나 세멘트생산기지건설은 그보다 엄청난 대성이었던것이다. 그는 우려하는 대원들에게 하나의 사실을 상기시켜주었다. 련단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소석회로 토지개방을 하는것과

동적로 건설을 맡아해야 하였다. 그러다보니 자체소요량이 매우 많았다. 군소제자들은 물론 볼동수송에 불리한 길은 산골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건설장에서는 누구나 한방출의 연을, 한의 세멘트를 퍼와 살림치면 여기였다. 그러하여 어느 단위에서나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동적로를 일어나갔다.

정강에는 지금도 황해북도리단에서 꾸린 세멘트생산기지가 있다.

면정정지일군이 처음 이 기지건설을 맡기하였을 때 대원들은 놀랐다. 물론 이들은 남보다 먼저 능력이 큰 석회로를 건설한 선구자였다.

그러나 세멘트생산기지건설은 그보다 엄청난 대성이었던것이다. 그는 우려하는 대원들에게 하나의 사실을 상기시켜주었다. 련단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소석회로 토지개방을 하는것과

동적로 건설을 맡아해야 하였다. 그러다보니 자체소요량이 매우 많았다. 군소제자들은 물론 볼동수송에 불리한 길은 산골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건설장에서는 누구나 한방출의 연을, 한의 세멘트를 퍼와 살림치면 여기였다. 그러하여 어느 단위에서나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동적로를 일어나갔다.

정강에는 지금도 황해북도리단에서 꾸린 세멘트생산기지가 있다.

면정정지일군이 처음 이 기지건설을 맡기하였을 때 대원들은 놀랐다. 물론 이들은 남보다 먼저 능력이 큰 석회로를 건설한 선구자였다.

그러나 세멘트생산기지건설은 그보다 엄청난 대성이었던것이다. 그는 우려하는 대원들에게 하나의 사실을 상기시켜주었다. 련단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소석회로 토지개방을 하는것과

동적로 건설을 맡아해야 하였다. 그러다보니 자체소요량이 매우 많았다. 군소제자들은 물론 볼동수송에 불리한 길은 산골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건설장에서는 누구나 한방출의 연을, 한의 세멘트를 퍼와 살림치면 여기였다. 그러하여 어느 단위에서나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동적로를 일어나갔다.

정강에는 지금도 황해북도리단에서 꾸린 세멘트생산기지가 있다.

면정정지일군이 처음 이 기지건설을 맡기하였을 때 대원들은 놀랐다. 물론 이들은 남보다 먼저 능력이 큰 석회로를 건설한 선구자였다.

그러나 세멘트생산기지건설은 그보다 엄청난 대성이었던것이다. 그는 우려하는 대원들에게 하나의 사실을 상기시켜주었다. 련단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소석회로 토지개방을 하는것과

동적로 건설을 맡아해야 하였다. 그러다보니 자체소요량이 매우 많았다. 군소제자들은 물론 볼동수송에 불리한 길은 산골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건설장에서는 누구나 한방출의 연을, 한의 세멘트를 퍼와 살림치면 여기였다. 그러하여 어느 단위에서나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동적로를 일어나갔다.

정강에는 지금도 황해북도리단에서 꾸린 세멘트생산기지가 있다.

면정정지일군이 처음 이 기지건설을 맡기하였을 때 대원들은 놀랐다. 물론 이들은 남보다 먼저 능력이 큰 석회로를 건설한 선구자였다.

그러나 세멘트생산기지건설은 그보다 엄청난 대성이었던것이다. 그는 우려하는 대원들에게 하나의 사실을 상기시켜주었다. 련단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소석회로 토지개방을 하는것과



천리마의 전통이 빛나는 력사의 땅에 울려 퍼진 우렁찬 진군나팔소리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 예술인들 남포시에서 첫 공연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승리의전진을 다그쳐 나가는 우리 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온 나라에 혁명의 전진기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예술공연활동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영웅적전진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는 명성높은 예술단체들이 항구문화도시인 남포시에서 뜻깊은 첫 공연무대를 펼쳤다.

우리 당 사상문화전선의 제일기수, 제일 나팔수들을 맞이한 기쁨이 넘쳐나는 속에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 음악무용합창공연이 16일 남포시예술

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남포시위원회 위원장 강양모 동지, 남포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리길은동지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금성트랙트공공장을 비롯한 남포시인의 주요공장, 기업소 입근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 힘, 자력 자강의 무궁무진한 위력으로 폭풍쳐나아가는 주체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안고 애국가의 강동한 선율이 장내에 울려 퍼지는 속에 공연이 시작되었다.

공연무대에는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어머님에게 드리는 노래》, 여성독창 《고백》,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나가지

조선이 병진 앞으로》,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바다 만풍가》, 《여가울라라 갈 때》, 《황금산타령》, 무용 《달려가자 미레로》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성스러운 붉은 당기투에 마시와 낫과 밭을 아로새긴 메로부터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의 진수를 승리로 이룩하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은 예술적화곡으로 펼쳐보였다.

남포시에 어려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놓아 주는 남성3중창과 남성합창 《강선의 노을》에 이어 실화시 《천리마의 전통

및내가라, 기적의 땅 남포여!》는 장례를 숭엄한 격정으로 설비하게 하였다.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강선과 기양, 대인과 청산별을 비롯한 남포명의 꽃을 찾아왔고소리 천리마의 발구름, 새로운 혁명적대고사의 불길높이 전진하는 헌영의 시대를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기특한 자욱 자욱이 백력히 어려있는 력사의 고장.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불꽃의 투사들로 역사적 자라나 혁명의 년대마다 당의 위업을 충정으로 만들어온것처럼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와도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명도마라 천리마의 전통

을 세세년년 이어갈 남포시인민들의 신념의 맹세를 구절구절에 담은 실화시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일편단심 당과 함께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우리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반영한 남성3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여성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로 공연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인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의 행복도 찬란한 태양의 희망도 있다는것을 깊이 새겨준 공연은 종족 《그이 없인 못살아》로 끝났다.

이렇게 말하였다.

전후의 그 어려웠던 시기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오늘의 어려운 난국을 라게해나가고 하신 어머니수령님과 강선이 굽어아 온 나라가 들끓고 강선의 르동계급의 발걸음이 더 빨라질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성이 어려와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천리마의 고향에서 사는 남다른 긍지와 영예를 안고 강철로 우리 당을 억척같이 만들어가겠다.

며칠전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를 모시고 들었던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리동찬 금성트랙트공공장 직장장은 흥분된 심정을 털었다.

어제는 우리 르동계급이 만든 새혁명의 트랙트공들을 보여주며 크나큰 사람들의 수감제를 보내면서 오늘은 명성높은 예술단체들의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려수님의 은덕에 감격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려수님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의 힘동발바다에서 사회주의수요전의 무적철마의 거센한 동음소리가 높이 울려오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

리성길 대안기계연합기업소 작업반장, 리성철 강서관공공장을 비롯하여 공연을 본 각계층 근로자들도 조국의 부강인영을 위해 고귀한 피와 땀을 바친 혁명의 전세대들처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성관원을 위한 건원동결전의 앞장에서 대비악, 대혁신을 일으켜야겠다는 절의를 피력하였다.

공연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앞을 다투어 무대에 올라가 배우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공연 심상을 축하해주었다.

당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든 천리마시대 영웅들처럼 태열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부강조국의 대문로를 앞장서서 열어가려는 남포시인민들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송명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기사장은 남성3중창과 남성합창 《강선의 노을》을 들으며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제3차 전국사회과학자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제3차 전국사회과학자대회 참가자들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혁명사적원을 참관하고 고향집트락에 돌아선 그들은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보면서 일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서 한평생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를 이룬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를 가슴 뜨겁게 되새기었다.

대외참가자들은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전변된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여러 호실들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사진본들을 우리로써 그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정책적인 명도로 혁명과 진실을 승리로 이끄시고 주체의 사회파악이 나아갈 앞길을 밝히 밝혀주시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체득하였다.

대상산혁명사적원을 참관한 대외참가자들은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주체혁명위업의 장엄한 미배를 열여놓으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업적을 돌이켜보며 어머니님의 투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력사들을 돌아보면서 혁명사적물의 백질불굴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르배의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높은 과학연구성으로 대외참가자들은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주체혁명위업의 장엄한 미배를 열여놓으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업적을 돌이켜보며 어머니님의 투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력사들을 돌아보면서 혁명사적물의 백질불굴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르배의



뜻하지 않은 정황속에서의 48시간

지난 10월 중순 어느 날 깊은 밤이었다. 남포해운사업소 대형집에 《고-3 5 9 9》라는 불공포지역에서 잠을 가득 싣고 서해바다의 물결을 헤가르고있었다.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앞두고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또다시 항해길에 올라 만점을 싣고 달리는 배에는 혁명적행방이 차려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외 핵심부대, 나라이의 만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띤 앞장에서 발뚧대 결연 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주켜들고 나가야 합니다.》

배는 어느덧 서해갑문을 가까이하고있는 수역에 들어섰다.

때는 새벽 4시 30분이였다. 갑자기 흥-하는 동중한 소리와 함께 배에는 온 손격이 가해졌고 뒤이어 배밑부분에서 아즈러운 소리가 울렸다.

조라를 잠고있던 선장은 즉시 소리를 들었다.

《갑판장! 빨리 선창에 내려가 무슨 일인지 알아볼것.》

선창에 뛰어든 갑판장은 깜짝 놀랐다. 선수가 선미방향으로 2.5m가량 배밑장이 갈라졌는데 그 밖으로 불기둥이 높은 압력으로 치솟고있었던것이다.

시시각각 배를 위협하는 바다 물결을 막기 위한 비상전투가 벌어졌다. 모든 선원들은 육박이 되어 짐을 나르고 3대의 불공포에 만부하를 걸어 배에 차오르는 물을 바다로 쏟아내었다.

그러나 물은 계속 차올라 무릎을 넘어갔다. 하지만 누구도 물러서는 사람은 없었다.

오직 하나 나라의 귀중한 재산인 배를 살려내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 전사원을 뻘뻘했다. 그러나 무진 애를 써도 바다물은 어느덧 리피를 지더니 어찌까지 차올랐다. 배가 기울어지고 뿔뿔이 터지는가운데서도 선장은 침착하게 지휘를 하였다.

선원들은 배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제 한침의 불기도 스며들지 않게 최의 안전대책을 세운 후 갑판에 올라섰다.

이때 갑보를 받고 달려온 같은 선단의 집배 《고-3 6 0 0》호가 배편에 다가붙었다. 자체 중량만 해도 천인데다 만점을 싣은 배를 위협하여 하나 남은 수역으로 끌고가자는것이였다.

두 선장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배를 때라. 자칫하면 두 배가 다 침몰된다. 물러서라!》

《인된다. 죽은살은 운명을 같이 하자! 천년이 우리 배에 옮겨라!》

선장은 집사의 의지를 가다듬고 점점 무거워지는 육중한 조난

을 수역에 맞을 내리게 되었다. 밑물에 떠는 용재로 삼키우고 조라같은 간신히 보이는 선배였다.

오전 8시 40분, 긴급명령을 받은 남포해운사업소의 일꾼들은 즉시 구조용비행기를 싣고 현지로 달려왔다.

북해운성의 해방 판미국에서 구조조종자들을 실은 구조선을 급파하였다.

현지에서 긴급회의가 진행될 때 이어 치명적인 구조원투가 벌어졌다. 물동은 다른 배에 옮겨질것과 동시에 수심대로 높이가 올라가면서 만부하로 돌아왔다. 잠수공들이 물구멍을 막기 위해 바다에 뛰어 들었다.

배안에 차있던 물이 한치도 한치 줄어들기 시작하자 배는 힘겹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선장 김순철, 부기반장 최현철 등무를 비롯하여 누구나 희생적으로 한숨을 들이쉬었다.

구조원투를 지휘하느라 지폐인, 초급당원들을 비롯한 일꾼들은 밤잠을 잊었고 목이 갈리고 눈

이들보다 48시간 동안 배를 띄우려 애썼던 배는 결국 수역에 떠돌아다니는 배가 되었다. 배가 기울어지고 뿔뿔이 터지는가운데서도 선장은 침착하게 지휘를 하였다.

선원들은 배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제 한침의 불기도 스며들지 않게 최의 안전대책을 세운 후 갑판에 올라섰다.

이때 갑보를 받고 달려온 같은 선단의 집배 《고-3 6 0 0》호가 배편에 다가붙었다. 자체 중량만 해도 천인데다 만점을 싣은 배를 위협하여 하나 남은 수역으로 끌고가자는것이였다.

두 선장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배를 때라. 자칫하면 두 배가 다 침몰된다. 물러서라!》

《인된다. 죽은살은 운명을 같이 하자! 천년이 우리 배에 옮겨라!》

선장은 집사의 의지를 가다듬고 점점 무거워지는 육중한 조난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도착

제3차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할 하리위 끝마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부리사정일행, 가리비네와즈 고를을 단장으로 하는 방갈라대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드. 엘호바드라드 지도리사회 성원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학회대표단,

엘라진구협회 위원장이 16일 비행기와 열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가마푸라 다카오 주체사상연구조직 리사정일행이 왔다.

또한 중국의 여러 사회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의 학자들이 도착하였다.

박말같이 하얀 함박으로 물결 단장된 거대한 배를 실을 하렘이 기다리는 한 창던이 있었다. 함포방직공공 3대혁명소호전 김준현이다.

소호생원의 첫 자욱과 더불어 인영의 고귀한 전리를 깨우쳐준 비역산이었다. 길지 않은 나뭇길 새겨진 발자욱들이 새삼스럽게 아껴왔다.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호전 김준현입니다.》

박말같이 하얀 함박으로 물결 단장된 거대한 배를 실을 하렘이 기다리는 한 창던이 있었다.



《소호원동무, 당위원장동지에 계시다 불렀소. 총명원들의 별 김준현을 해직하기 위해 애쓴다 시. 정말 권익을 받았소. 자네를 뜻는 우리가 전적으로 들켰으니 한번 배회하게 내밀어보라.》

그의 말에 준현은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우의 공장은 전생신을 기본으로 하는 공장인데 기술혁신도 전생신에 도움이 되는것이 아니라 밧이 남게 아닌가. 그런데 인민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준현은 자기의 조부와 미상을 생나무무뎀 한 당위원장에 대한 고까운 감정이 있는지라 더욱더

는다는 소식에 준현은 흥뜻 놀랐다. 며칠전 지내일군이 찾아왔을 때 속을 비추었는데 뜻이 그 일대문일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런데 뜻밖이었다. 연혁소개신을 참관한것이였다.

북부이 연혁소개신을 돌아보면 준현은 공로자들의 사생활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조국의 뿌리가 되겠다는 인생관을 지니고 누가 보지않고, 알아주지않고 불우이 만든 초소에서 성실하게 일한 혁신자, 공로자들... 사선속의 사람들은 준현을 보며

《실화》

에서 일어났을 못했다. 파견되어올 때 맞이주던 당원군의 친근한 모습은 눈앞에서 가뭇없이 사라지고 갈탄버럭으로 종업원유연감문제를 풀 방법을 찾아보라는 실무적인 목소리만이 귀전에서 뱀물었다.

준현은 지도부의 한숨을 내쉬며 무척 들어갔다. 정적 거렁거렁에 가보니 눈앞이 캄캄하였다. 인적이 드문 썰렁한 거렁거렁, 한구석이 산같이 쌓여있는 갈탄버럭... 온몸이 비덕머미에 짓눌려 숨이 막히는듯싶었다.

《꿈모임이 내버린 갈탄버럭에나 붙어지고 여기에 왔구나.》

당위원장에 대한 의견이 골라가는 눈덩이마냥 커가는데를 어쩔수 없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버틸때 실험모름으로 일을 하였으나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공장의 자재 일군이 찾아왔다.

《공장의 기술발전엔 큰 도움이 될 연구과제를 맡겨달라고 다시 제기하시.》

그가 이런 생각을 모으며 훌쩍하게 날을 보내던 어느날 오후였다.

당위원장이 소호원들을 다 찾

《공정하든 공정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헌것은 누가 알아주지않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것은 손익의 함정이 아닐가. 저 버럭만은 종업원들의 열 감동세를 풀수 있는 보물고만드는데가 얼마나 만일이지요. 종업원들의 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한 중요한 일을 동무가 맡았어요. 그것을 어떤 명에든 비기겠어요? 난 준현동무를 믿어요.》

준현의 얼굴이 화가 끓었다. 《나에게는 왜 저 버럭이 보물로 보이지 않았는가.》

스웨리에 안전 및 개발 정책연구소대표단 귀국

니콜라스 스만스트럼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웨리에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대표단이 16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대표단은 방북기간 의무성 군속 및 평화연구소, 유원당국

《공정하든 공정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헌것은 누가 알아주지않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것은 손익의 함정이 아닐가. 저 버럭만은 종업원들의 열 감동세를 풀수 있는 보물고만드는데가 얼마나 만일이지요. 종업원들의 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한 중요한 일을 동무가 맡았어요. 그것을 어떤 명에든 비기겠어요? 난 준현동무를 믿어요.》

준현의 얼굴이 화가 끓었다. 《나에게는 왜 저 버럭이 보물로 보이지 않았는가.》

어리석은 야망을 버려야 한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당대한 해전력자산을 전제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정정평에 대해 비핵화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이 《고강도제재압박을 통한 북핵문제해결》의 간판을 내걸고 그 무슨 《반제조국건설 비핵화협상》에 대해 떠들고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당대한 해전력자산을 전제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정정평에 대해 비핵화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이 《고강도제재압박을 통한 북핵문제해결》의 간판을 내걸고 그 무슨 《반제조국건설 비핵화협상》에 대해 떠들고있다.

여기도 미제와의 판거리결전장이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당대한 해전력자산을 전제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정정평에 대해 비핵화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이 《고강도제재압박을 통한 북핵문제해결》의 간판을 내걸고 그 무슨 《반제조국건설 비핵화협상》에 대해 떠들고있다.

미친개를 때려잡는 심정으로

남조선과 그 주변에 당대한 해전력자산을 전제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정정평에 대해 비핵화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이 《고강도제재압박을 통한 북핵문제해결》의 간판을 내걸고 그 무슨 《반제조국건설 비핵화협상》에 대해 떠들고있다.

통지처참해도 씨원치 않을 불한당

남조선과 그 주변에 당대한 해전력자산을 전제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정정평에 대해 비핵화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이 《고강도제재압박을 통한 북핵문제해결》의 간판을 내걸고 그 무슨 《반제조국건설 비핵화협상》에 대해 떠들고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당대한 해전력자산을 전제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정정평에 대해 비핵화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이 《고강도제재압박을 통한 북핵문제해결》의 간판을 내걸고 그 무슨 《반제조국건설 비핵화협상》에 대해 떠들고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당대한 해전력자산을 전제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정정평에 대해 비핵화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이 《고강도제재압박을 통한 북핵문제해결》의 간판을 내걸고 그 무슨 《반제조국건설 비핵화협상》에 대해 떠들고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당대한 해전력자산을 전제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정정평에 대해 비핵화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이 《고강도제재압박을 통한 북핵문제해결》의 간판을 내걸고 그 무슨 《반제조국건설 비핵화협상》에 대해 떠들고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당대한 해전력자산을 전제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정정평에 대해 비핵화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이 《고강도제재압박을 통한 북핵문제해결》의 간판을 내걸고 그 무슨 《반제조국건설 비핵화협상》에 대해 떠들고있다.

《리명박을 구속하라!》, 《쥬새끼를 잡아들이라!》, 《범죄자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남조선 각계층 리명박구속심판투쟁 격렬히 전개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각계층의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리명박구속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조선에서 각계층의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리명박구속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조선에서 각계층의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리명박구속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조선에서 각계층의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리명박구속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대매국적죄악을 무마하려는 비렬한 관결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10일 폐회식에서 진행된 《사드》배치와 관련된 혐의과정에 작성된 미국납조신사익정서를 공개하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관결을 내리었다.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10일 폐회식에서 진행된 《사드》배치와 관련된 혐의과정에 작성된 미국납조신사익정서를 공개하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관결을 내리었다.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10일 폐회식에서 진행된 《사드》배치와 관련된 혐의과정에 작성된 미국납조신사익정서를 공개하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관결을 내리었다.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10일 폐회식에서 진행된 《사드》배치와 관련된 혐의과정에 작성된 미국납조신사익정서를 공개하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관결을 내리었다.